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아름다운 주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사,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님을 존경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너를 낳은 아비에게 정중하고 네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도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 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2-25절

“창조세계 돌봄은 복음적 이슈이다!”

로잔운동, 어떻게 ‘창조세계 돌봄’이 복음주의 교회의 핵심 이슈로 선정되었는지 밝혀

2023년 3월 20일,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창조세계에 대한 최신 리포트를 발표했다(Urgent climate action can secure a liveable future for all).
보고서의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다.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로 인한 세계 기온의 위험한 상승, 계속해서 더 강력해지고,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의 15배 증가,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과 수자원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들 속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한 가지가 있다: 보고서에 나타나는 기후 변화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가난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대한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은 많은 사람을 낙담시킬 수 있다. 하

지만, 창조세계 돌봄(Creation Care)의 최전선에 있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긴급한 희망을 가지고 보고서에 대해 응답하고 있다. 2018년부터 로잔 창조세계 돌봄 분야 위원장이자, 세계 최대의 기독교 창조세계 돌봄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아로샤 인터네셔널(A Rocha International)의 신학위원장인 데이브 부클리스(Dave Bookless)는 ‘이 최신 보고서는 우리가 직면할 최악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함께, 빠르게 대처한다면 희망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행동을 취할지 여부가 수백만 명의 삶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의 번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How Creation Care Became a Gospel Issue: THE GLOBAL CHRISTIAN MOVEMENT CARING FOR GOD’S CREATION).

복음주의 교회가 최근 우리가 사용하는 명칭인 ‘창조세계 돌봄’을 항상 지지해온 것은 아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 운동의 핵심적 시기는 세계 복음주의 교회가 창조세계 돌봄을 복음적 이슈로 받아들인 제3차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대회(케이프타운, 2010)이다.

대회를 앞둔 몇 년간, 에드 브라운(Ed Brown)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살피는 일을 위해 교회를 동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창조세계의 돌봄(Care of Creation)이라는 조직을 이끌고 있었다. 이는 다소 외롭게 진행되는 사업이었고, 어떤 사람은 브라운에게, ‘기독교 환경운동가? 그런 것이 존재하긴 하는가?’라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브라운은 이렇게 회상한다. ‘2007-8년쯤, 나는 로잔대회가 열릴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창조세계 돌봄이라는 주제를 아젠다에 포함시켜야 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개인 지도자들과 은연중에 이야기를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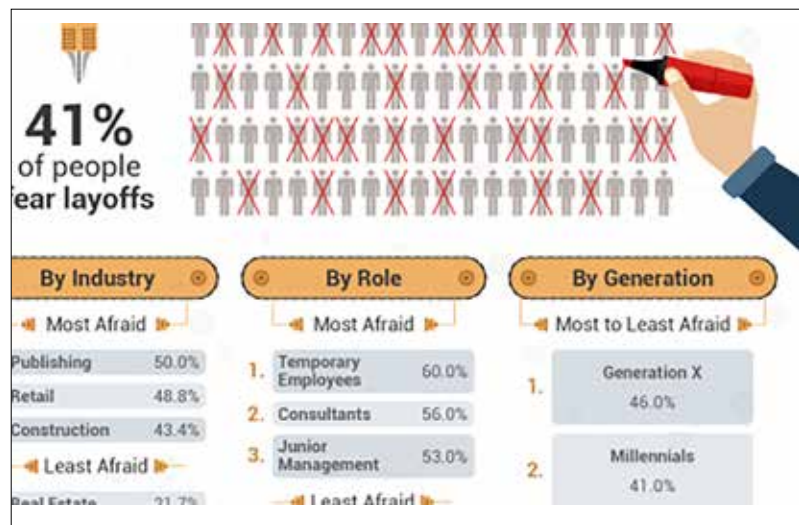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나는 로잔운동의 일원이 아니었다.’ 그는 웃으며 말한다. ‘나는 (로잔운동에) 침투하고 있었다.’ 당시 로잔을 이끌던 덕 버설(Doug Birdsall)과의 예상치 못한 연결을 통해, 브라운은 케이프타운 2010으로 뒤늦게 초대받았고, 그곳에서 창조세계 돌봄이라는 주제가 멀티플렉스(multiplex) 세션으로

제공되었다. 브라운은 이렇게 말한다. ‘더 큰 운동을 위해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 언급되었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창조세계 돌봄을 위해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된 적이 없었다.’ 케이프타운 2010에서 시작된 복음주의 창조세계 돌봄 운동을 위해 만들어진 가장 중요

한 것은 케이프타운 서약(The Cape Town Commitment)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는 창조세계 돌봄에 대한 그 서약의 한 부분이었다: “우리는 이 땅을 보호한다,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3면으로 계속)



AI 기술 위협 아닌 자원으로 받아들여 공존해야!

BBC,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직장인들의 불안과 대응 방안 보도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사회적 담론이 확산하면서 자신의 미래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런던에 본사가 있는 대형 컨설팅 회사에서 지난 6년간 홍보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클레어(34)는 일이 즐겁고 월급도 만족스럽지만 6개월 전부터 자신의 커리어가 걱정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바로 인공지능(AI) 때문이다.

성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한 클레어는 “아직은 기계가 내 업무 품질에 필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동시에 ChatGPT가 얼마나 빠르게 정교해지는지 보며 놀란다.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로봇이 나만큼 내 일을 잘할 수 있는 세상을 분명 상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되면 AI가 고용시장에서의 제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AI anxiety: The workers who fear losing their jobs to artificial intelligence).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더욱 자주 등장하고,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빠르게 보편화되면서 일부 근로자들은 자신의 미래가 걱정되며, 자신이 현재 보유한 기술이 향후 노동

시장에서도 수요가 있을지 불안감을 느낀다고 호소한다.

지난달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는 AI가 앞으로 정규직 일자리 3억 개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13면으로 계속)

 3면 시론 최해근 목사	 4면 푸른초장 손기성 목사	 13면 C.S.웬슨의 생애선배 강태광 목사
---	---	--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D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월드쉐어USA**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집스전기방)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은혜 창립기념 부흥성회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룻기 1:6-14)

2023. 5.18(목) ~ 21(주일)

18(목) 7:30pm/ 19(금) 5:30am, 7:30pm/ 20(토) 6:00am, 7:30pm
21(주일) 1부 7:30am/ 2부 9:20am/ 3부, 4부 11:30am

강사 : 이승희 목사(대구 반야월교회)
장소 :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

이승희목사 프로필 & 저서

- 현) 반야월교회 담임목사
-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 역임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 역임
- 마틴 루터킹 특별상 수상(2019)
- 캄보디아 국왕 훈장 수훈(2018)
- 대한민국 국민대상 자랑스러운 목회자상 수상
- 통곡이 끝나고 비로소 웃다 (두란노)
-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복 (두란노)
- 삶의 회복이 필요한 그대에게 (생명의 말씀사)
- 하나님과 함께 걷다 (생명의 말씀사)
-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 것인가 (역투스)
- 기도, 행복을 퍼올리는 두레박 (기독신문사)
- 고통을 알면 행복이 보입니다 (기독신문사) 등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주일 | 1부 7:30am, 2부 9:20am, 3부 11:30am, 4부 2:00pm | 금요성령집회 7:30pm | 새벽예배(일천번제) 월~금 5:30am, 토 6:00am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 TEL: 714.446.1000 | www.gracemi.com

발행인 칼럼

위기(危機)의 가정



김성국 목사 (권장로교회 담임)

지난 6일 토요일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이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됐다. 이 대관식에는 왕실 가족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유명인들이 참석하였고 런던 현지에 그리고 TV나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과연 행복할까? 그날 행사 중에 찰스 3세가 '지겹다'고 말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화려한 웃을 입고 있는 왕실가정이 매우 일그러져 있음을 본다. 왕 자신이 불륜(不倫)으로 인한 이혼과 재혼의 과정을 거쳤고 둘째 아들 해리 왕자는 이미 가족과 왕실을 떠났고 그날도 다른 가족과는 달리 평상복을 입고 참여하였다가 서둘러 자리를 떴다고 한다. 그가 쓴 '스페어'는 자신과 왕실의 추문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쏟아낸 책이다. 그러니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대관식을 갖은 특별한 가정이라 하여도 '과연 행복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펴보면 딱하고 우스꽝스러울 수가 있었다.

같은 날 텍사스에서 들려온 소식은 참담했다. 텍사스주 델러스 교외 대형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희생자 가운데 한인 부부와 3살 난 아들이 있었고 5살 난 아들은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변호사와 치과의사인 이들 부부는 주위에서 신망이 두텁게 받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토록 아름답고 평화로운 가정이 허물어졌다. 소식을 접한 모든 이들의 마음도 허물어졌다. 떠난 이들은 물론이요 총격(銃擊)과 충격(衝擊)에 홀로 남겨진 아이를 생각할 때 슬픔을 금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질문을 던져본다. 백주(白晝)의 대낮에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 도대체 이 세상에 '안전한 가정'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는가 라는 탄식어린 질문이다.

가정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일 눈을 뜨면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영국 왕실처럼 가족 구성원 그 자신이 그 위기의 원인이기도 하고, 텍사스에서 일어난 일처럼 밖으로부터 예고 없이 다가오는 어려움도 있다. 이런 매일수룩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야곱도 스스로 가정의 위기를 자초한 자이다. 자기의 집에서도 그랬고 외삼촌 집에서도 그랬다. 야곱은 뽀랭에 올라갔다. 언약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갔다. 욥의 가정도 하루아침에 풍비박산(風飛雹散)되었다. 욥은 예배의 자리로 나갔고 말씀을 붙잡았다. 가정이 분란(紛亂)했던 한나는 또 어땠는가. 모두 기본으로 돌아갔다. 기본으로 돌아가니 위기가 위협이 아닌 또 다른 기회가 되었다.

남편은 남편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다시 지켜야 한다.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마찬가지이다. 에베소서에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라고 가족의 구성원을 각각 부르는 부분이 있다. 가족 구성원은 각기 고유한 자리와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가족 안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자 시도하면 가정에 균열이 시작된다. 우리 가족을 다른 가족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가정에 상처가 있다. '그만 둘 수 있으면 사랑이 아니다. 그만 둘 수 없으니 사랑이다'라는 글귀를 읽은 적이 있다. '사랑하기에 헤어진다'는 거짓에 휘둘리지 말자.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하나님이 멋지게 만드셨고, 너는 너가 될 때 가장 아름답다'고 말해야지 '넌 옆집 애 좀 닮아봐라'는 망언(妄言)은 더 이상 하지 말자.

디지털 기도 사역, 새로운 사역으로의 초대!

처지리더스컴, SNS 적극 활용한 디지털 기도 사역의 실용 방안 소개

기도하는 교회공동체는 목회자의 방향성을 그들의 우선적 과제에 두는 강력한 "게임 체인저(needle-mover)"이다. 기도 공동체의 활동을 통해서 성도들은 교회 바깥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교회에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교회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성도들과 건설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 공동체 활동이 없으면 위에서 설명한 활동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자로만 이루어진 기도는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메일과 문자로 기도하는 것도 직접 기도하는 것처럼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다. 디지털 기도 사역 역시 직접 만나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기도 사역이다. 기도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우고 정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대면과 비대면 관계성이 유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디지털 기도 사역은 영적 실천의 또 다른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도 활동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바로 "디지털 기도 사역(digital prayer)"이다. 우리는 디지털 기도 사역의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이메일과 문

그렇다면 왜 디지털인가? 디지털 방식을 활용하여 기도 활동을 하는 교회는 이전보다 최대 10배까지 기도 활동의 범위를 넓혔다 (Digital Prayer: A New Invitation to a Sacred Conversation)

봉사 활동에 있어서

기도는 다른 방법들로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방법이다.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대표적인 캠페인 파트너인 Gloo(Churches Care)에 대해서 보자. Gloo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과 비슷한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가장 뜨거운 반응을 일으킨 광고는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광고였다. 이 광고를 본 누군가가 기도 요청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내면, Gloo에 있는 필자의 팀은 이들을 근처의 교회와 연결해 준다.



개인적 연결된 지역 교회는 그들의 요청을 놓고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한 개인과 지역 교회의 사역자들 사이의 관계성이 형성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는 더욱 더 깊어지게 된다. 진정한 관계성은 디지털 연결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했다.

요청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교회에서 종이로 된 기도 카드보다 더 투명하게 기도 요청에 대한 내용을 관리할 수 있고, 예배가 끝난 후에 기도팀(prayer team)에서 기도를 요청한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교회 참여에 있어서

요즘 사람들은 점점 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영적인 콘텐츠를 찾고 있다. 이에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 간의 접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자원 봉사자 모집에 있어서

교회에 기도실을 갖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 기도자는 우리 구성원들이 서로 봉사하고 연결되도록 도와준다. 알다시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그 사람을 격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성숙한 크리스천들이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방법과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기도 사역을 하는 교회는, 기도를 통해 누군가를 돕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마련해 준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도구들은 모든 기도자들을 도울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섭리를 시각적으로 드러나게 해준다. 기도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전통적 실천이며 거룩한 초대이다. 그리고 디지털 기도 사역은 단순히 전기적 도구를 넘어서 새로운 사역으로의 초대이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가복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상담심리학과 디렉터 모집 공고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는 상담심리학 석사(M.A. in Counseling Psychology) 과정 디렉터로 재직하실 교수님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자격요건:
- 기독교 분야 석사 학위(M.Div., M.A. in Theology, M.A. in Christian Counseling etc.) 취득자
- 상담심리학 분야 박사(Ph.D. in Counseling Psychology, Doctor of Psychology) 학위 취득자나 그에 준한 자
- 미국 내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공인된 기독교상담심리학회나 목회상담협회의 1급 라이선스를 취득한 자나 감독 자격 취득한 자 우대
제출서류:
- 국문 이력서
- 영문 이력서
- 자기소개서(경력 중심으로 작성): 한글 혹은 영어로 작성하되 근무한 모든 기관의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필수 기록 바람.
- 영문 강의계획서(Syllabus) 샘플 1부
-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증 및 성적증명서 영문 원본 각 1부: 졸업대학 사무실에서 직접 이메일(stevehong@ptsa.edu)로 보내주거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로 우편 발송
- 목회자 추천서 2부
- 교수 추천서 2부
- 신분증 사본(운전면허증, 여권 등 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
제출기한:
- 2023년 7월 14일(금)까지
- 지원서류 수신 담당자와 이메일 주소: 최고운영책임자 홍성학 교수 | stevehong@ptsa.edu
모든 서류는 e-mail(PDF)로만 받습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위하여
여러 정신건강 전문가와 기관들이 함께 준비한
한인 정신건강 워크숍
1차 세미나
일시: 5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
장소: American West University
1818 S. Western Ave. #203 LA CA 90006
후원: 재미한국노인회
날짜 주제 강사
5/12 (Fri) 불안 장애 Anxiety Disorder 수잔 정 박사
5/19 (Fri) 양극성 장애 Bipolar Disorder 김경준 박사
5/26 (Fri) 우울증 Depression Disorder 수잔 정 박사
6/2 (Fri) 약물 중독 Addiction 한영호 목사
6/9 (Fri) 강박 장애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김경준 박사
6/16 (Fri) 죽음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나승렬 목사
워크숍 참석 베네핏
1) 한국어와 영어로 된 정신건강 정보 안내서 무료 증정
2) 세미나 후 10명의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한 정신건강 내비게이터들이 상담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기관에 영어로 서비스 신청 해 줌.
3) 간단한 간식과 음료 제공
프로젝트제공
ASK
Good Life Care Resource Center
Korean Navigation Mental Health Project
컨설턴트 (Consultant): 김효철 (Hyochul Kim)
213.820.8855 | khckjo@gmail.com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요한복음 20:21에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했습니다.

보고 4월22일 LA로 돌아왔습니다. 야기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그런데 저는 손자를 돌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알래스카를 가면서 도 크게 걱정을 하진 않았는데, 한국에서 작년 12월부터 먼저 2달을 와서 야기를 돌보신 사돈들은 "죽을 뻔 했다"는 것입니다. 바깥사돈은 공수부대 특전사 출신으로 상사로 제대한 직업군인입니다.

넘겨받고 사위와 딸은 병원으로 출근하고 저녁 9:30까지 야기를 돌보는데 밤먹을 시간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눈이 매일 쏟아지는데 눈오면 쌓이기 전에 치워야하고 집안에 2마리 개가 있어 매일 개털 날리지 않게 베품 청소를 해야 합니다. 3일을 하니 몸살이 날것 같은데 어떻게 두달을 견디어낼까 생각하니 앞이 아득했습니다.

했습니다. "네가 가까운 입고 거룩하게 주일에배드리며 찬송하고 설교하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지금 이 어린아기를 이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같이 자라세상과 죄악과 마귀를 이기도록 매일 안수기도하며 예수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 순간 제 눈에서 화개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손에 맡겨진 이 2달이 이 손자의 일생을 이기는 영적 무장을 시키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아- 나는 이곳에 단기선교사로 왔구나"라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셸폰에있는 예수보혈찬송 메들리 20곡을 계속 틀어놓고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정말 피곤이 사라지고 힘이 솟았습니다. 찬송이 끝나면 요한복음부터 성경낭독을 틀고 야기 머리에 계속 안수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주여, 장차 어둠의 시대에 진리의 등대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야기에게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기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평강과 사명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고백하며 죽기를 작정하고 사명 감당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주님께서 보내신 사명의 자리인 줄 믿고 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기쁘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songpkak@hotmail.com

신앙시



강영혜 시인

우크라이나를 위한 노래

그 땅은 눈물이 모여 붉은 강을 이룬다. 어제는 파라다이스 오늘은 지옥

보았는가, 어린이 눈감은 것을 코로나도 이겨낸 아이 총부리 끝으로 잃고 강이 되어 바다로 흐르는 어머니 눈물,

온 세상 갖는 것이 꿈이더냐 어머니는 그 아이가 온 세상이 아니더냐

제일 큰 땅덩어리 그것도 모자라 소박한 삶과 터전 송두리째 빼앗는구나

힘으로 온 세상 호령해도 영웅은 될 수 없듯, 호랑이도 어린것을 죽이지 않아 사람 사는 세상 이런 거라면 밀린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이름 없는 동물로 살아야 되리라

눈을 뜨고 보라 귀를 열어 들으라

힘으로 시작한 폭격 힘으로 멈추어야 할 이유이다

기도하는 호흡으로 통곡과 눈물도 마를 절망의 땅을 회복하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강영혜 시인은

25회 에피포도문학신인상 수필을 수상했으며 장한어머니상, 한미오토모트협회(KAAG)를 설립, 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www.kaagus.org

CMF선교회 5월정기예배 가져

"고난을 이기며 하나님의 섭리 깨닫는 성도 되자"

CMF 선교회(대표 김철민 장로) 5월 정기 예배 및 모임을 6일 (토) 오후 5시 CMF선교관에서 가졌다. 김인태 전도사(CMF)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양병식 목사 대표기도, 채형병 목사(CMF)가 '고난 가운데 깨닫는 은혜(창 47:7-1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난을 당하여도 그 고난의 삶을 이겨 나가야 하는데 어떠한 고난이라도 하나님은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런 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육신의 눈이 성령의 눈으로 바뀌게 하셔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한 것을 느끼게 하신다"고 강조했다.



CMF 5월 정기모임을 마치고 기념촬영

조국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과 사의 축도로 CMF 선교회 5월 정기예배 및 모임을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the East (NY, NJ) region, listing various churches, their pastors, and service times. Includes sections fo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and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동탄 어린이 축제'

비기독교인이나 타종교인들 모두 환영

동탄어린이미래재단(하근수 대표)이 지역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한 '제1회 동탄어린이축제'가 5일 동탄센

트럴파크에서 개최됐다. 이날 비가 오는 곳은 날씨였지만, 행사장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온 1만여 명 이상의 가

족들로 꽉 들어차다. 오전 10시부터 다양한 체험부스가 진행됐다. 8개 마당에 총 60여 개의 부스가 마련, 참가자들은 다양한 놀이와 먹거리 등을 즐길 수 있었다. 이어서 태권도 시범 공연 등 각종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하 대표가 담임목사로 있는 동탄시온교회의 교인 800여 명은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봉사에 나섰다. 하 대표는 "비기독교인이나 타종교인들 누구나 다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탄시온교회 이름이 아니라 동탄어린이미래재단 이름으로 진행했다"며 "이 행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밝은 세상, 신나는 꿈과 희망을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예장백석, 튀르키예에 '백석인의 마을' 조성 추진

총회 구호팀 지난 1~6일 현지 방문... '동남부교회재단' 과 협업키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총회장 장중현 목사)는 대지진 피해를 당한 튀르키예에 하타이주 일대에 기독교 공동체인 '백석인의 마을' 조성 등 재건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예장백석총회 구호팀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하타

이주를 방문해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백석총회 제2부총회장 이규환 목사를 단장으로 한 구호팀은 가장 피해가 큰 안타카아를 비롯해 컨테이너 하우스 건설현장을 둘러봤다. 현지 이재민들은 임시 거처인 천막에 머물고 있다. 백석총회는 튀르키예 구호

파트너로 현지 '동남부교회재단'을 선정해 구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지 이형곤 선교사를 통해 이재민 가정에 나눠줄 운동화를 사전 구입했고, 동남부교회재단 사역자 데보라 선교사와 함께 천막촌을 방문, 이재민 가정에 운동화를 전달했다.

향후 백석 총회는 모금된 구호현금으로 '백석인의 마을'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튀르키예 동남부교회재단은 정부로부터 컨테이너 하우스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했고, 세계 교회의 후원에 따라 30동 단위의 마을을 조성하는 '카야 랜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재단 측은 백석총회와 협력할 경우 교회의 후원을 명시하고, 장기적으로 기독교 공동체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백석총회는 조만간 '백석인의 마을' 조성과 '1노회 1주택 짓기 운동'을 총회 실행위원회에 제안키로 했다.



"아프리카 돕는 한국교회와 선교사 볼 때마다 감사"

윤선희 WFP 한국사무소장, 아직 2억명 가까이 식량난 고통

내전 기후위기 자연재해 등은 전 세계 식량난의 주요 원인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에 국제전쟁까지 더해지면서 극심한 식량 위기에 처한 이들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 4일 윤선희 유엔세계식량계획(WFP) 한국사무소장은 "코로나 전 1억3500만명이었던 식량 위기 인구가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3억5000만명이 됐다"며 "지난해 WFP가 역대 최고인 90개국 1억5800만명을 도왔지만 아직도 2억명 가까운 이들이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참혹한 현실을 전했다. 올해 설립

60주년을 맞은 WFP는 유엔 정식기관 중 가장 큰 인도적 지원 기관이다. 식량과 영양지원 긴급구호 등을 진행하며 전 세계 기아 퇴치를 목표로 사역하고 있다. 2020년에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대표적인 유럽의 곡창지대였던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난 후 주변국은 물론 아프리카까지 식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WFP는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 중간역할을 담당했으며 다른 나라로 피신한 난민도 도왔다. 윤 소장은 "풍요롭던 우크라이

나가 전쟁으로 인해 바로 수혜국이 됐다. 올해는 우크라이나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됐으니 식량난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WFP는 한국전쟁 여파에 태풍까지 덮인 1963년 한국 정부의 구호 요청에 따라 64년부터 20년 동안 지원했다. 현존하는 유엔 정식기관 중 한국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단체가 WFP다. 그 후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한국은 지난해 WFP 공여국 중 10위 안에 들었다.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자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WFP 수단·남수단·레소토 사무소에서 근무했던 그는 도움이 필요한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교회의 활약상을 목격한 증인이기도 하다. "한국사무소장을 맡아 고국에 돌아오기 전부터 가난한 아프리카에서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이 꼭 필요한 사역을 끝까지 해내는 모습을 수없이 봤다. 최근 한국교회 봉사단도 우크라이나와 시리아를 위해 20만 달러를 보내줬다. 한국교회 사람과 나눔의 정신이 배고픔에 고통받는 많은 이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한다."

등을 주제로 한 아홉 차례의 강연과 오전·저녁예배가 이어진다. 사흘 동안 참석자들은 '목사와 장로의 숭선수범' '교회학교와 다음세대' '미래 자립교회와 개척교회의 자립' '지구를 살리는 총회' '가정과 교회, 노회' 등 20개의 기도 제목을 두고 통성으로 기도했다.

교단의 신학을 바로 세우고 교회 부흥을 위해 1964년 첫 모임을 한 목사장로기도회는 교단 정기총회를 제외한 예장합동 총회의 최대 연례행사이다.

"목사·장로 화합, 그리스도가 원하는 부흥 실현하자"

예장합동, 제60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8일 서울 총현교회(한규삼 목사)에서 오광춘(전남 영광대교회) 장로가 대표로 기도하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총회장 권순웅 목사) 산하 전국 163개 노회에서 모인 2000여명의 목사와 장로가 두 손을 들고 "아멘"을 외쳤다. 제60회 예장합동 총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첫날 현장에서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송영식(광명 서광교회) 운영팀(서울 대

한교회) 목사와 김경환(대구 일광교회) 장로가 각각 '코로나의 긴 터널을 벗어나 힘차게 도약하게 하소서' '총회와 노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표로 나서 기도했다. 10일까지 이어진 기도회에서 '장로교 정치제도의 원리와 회의법(한기승 목사)' '누가복음과 기도 신학(한규삼 목사)' '그리스도인의 나눔(호용한 목사)' '다음세대가 행복한 교회(정명철 목사)'

가정의 달에 드리는 시



임영실 권사

엄마

"내딸아 조만간에 남쪽에서 만나자 그때까지 항상 몸조심 하여라" 나의 두 손을 꼭 잡고, 나를 먼저 피난 보내며 하신 말, 이 순간이 엄마와 마지막일 줄이야...

엄마는 북쪽에 있다. 아침햇살 가득한 창문 너머로 엄마의 모습이 보인다. 햇빛으로 짙은 엄마 모습이 보인다.

엄마는 북쪽에 있다. 귀를 기울여본다. 사랑한다는

엄마의 속삭임이 들린다. 가슴 속에서 뭉클함이 피어난다. 북쪽 하늘의 별도 아름답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우리 엄마의 얼굴이다.

가슴을 저리게 하는 엄마의 사랑, 엄마 냄새가 그리워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바람에 실어 보낸다.

지금 엄마는 남쪽 북쪽 어디에도 없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림자 되어 내 맘속에 머물러 있을 뿐...



청년과 밀착+교계 본질 전파... '플리프'의 일석이조

NGO 월드휴먼브리지 자선축제 탐방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만나교회. 이 곳에서 6일 특별한 축제가 열렸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휴먼브리지(김병삼 대표)가 다음세대인 청년들과 밀착하고, 교계의 본질을 바로 알리기 위해 마련한 제1회 청년문화축제 '플리프'(FLIF·Fashion & Love International Festival)가 그것이다.

다양한 테마를 갖고 있는 부스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참가자들은 모든 부스를 빠진

없이 돌아다니며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어떤 부스에서는 동행자와 함께 그림을 그렸고, 또 다른 부스에서는 꽃화분을 직접 만들었다. 또 특이한 의상과 소품, 액세서리 등을 입어보고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참가자들이 허기질 것을 대비해 몇몇 부스에서는 빵과 커피 등을 판매하기도 했다. 특히 고아들을 돕는 착한 빵집으로 유명한 '래미안 제빵소' 부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눈길을 끌었다. 축제의 열기는 '토크콘서트'가 열리는 오후 5시에 더욱 고조됐다. 이 자리에서 김병삼 대표, 배우 김정화와 CCM 가수 유은성 부부 등이 '두 유 노우 기독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부스나 패션쇼 등이 청년들을 위로하고 밀착하기 위한 자리였다면, 토크콘서트는 청년들에게 교계의 본질을 바로 알리기 위한 자리였다.

다음 순서로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패션쇼가 열렸다. 배우 김정화를 비롯해 선우은숙, 이은형, 임성연, 정나은, 정태우, 황인영 등이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행사의 좋은 취지에 공감해 별도의 돈을 받지 않고 참여했다. 패션쇼에서 배우들이 입은 의상은 현재적 관점에서 전통한복의 멋을 재해석한 이일순 디자이너의 작품이다. 한편에서 패션쇼가 진행되는 가운데 또 다른 한편에선 공연이 열렸다. R&B 가수인 범키와 그가 운영하는 회사에 소속된 가수들이 함께 무대에 올랐다. 두 사람은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대표곡들을 열창했고, 때때로 관객들에게 따라부르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담임목사님 600명이 '까톡까톡' ...

교회친구다모여 오픈채팅 5천 돌파

온라인사역단체 '교회친구다모여'가 실명제 오픈채팅방 참여 인원이 5000명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교회친구다모여'는 2019년 4월부터 한국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자료도 나누고 고충 상담 등 교

류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 찬양팀방에는 1300명, 신학생부터 담임목사까지 모인 교역자방과 주일 학교 청년부 담당 사역자가 참여한 지금세대방에는 각각 1200명이 가입돼 있다. 미디어 사역자방(1100명)과 담임목사가 모인 '요셉의창고'방(600명)까지

교회친구다모여가 운영하는 5개 오픈채팅방을 모두 합하면 5000명 규모의 수준이다. 교회친구다모여측은 이에 대해 한국교회에 전례 없던 공식적인 초대형 커뮤니티라고 설명했다.

오픈채팅방은 신명제(<https://link.inpock.co.kr/churchsoulmate>)로 운영된다. '교회친구다모여'는 "이단가입방지를 위해 실명제로 운영 중이며 출석하는 교회와 전화번호도 확인한다"며 "가입 인원에 허수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교회친구다모여'는 최근 오픈채팅방 회원들을 위한 '온라인 자료실'을 개설했다. 여러 교회에서 사용되는 문서나 양식 자료가 공유된다. '교회친구다모여'는 "미자립교회 등 사역의 어려움을 느끼는 여러 집단이 고충을 나누며 교회가 하나의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권 (롬5:15-17) 찬 431장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명이 지배하는 삶을 삽니까? 첫째, 한 사람의 범죄로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함으로 시작합니다. (15) 둘째,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죄가 처리되고 영생을 얻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16) 셋째, 나아가 그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인정함으로써 영생

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17) 은혜받은 자라는 겸손한 마음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됨을 주장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늘 영생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풍성한 생명 안에 즐거워하는 삶을 즐기며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화 한 사람의 순종 (롬5:18-21) 찬 98장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한 사람의 역할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첫째,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전체에 미친 것처럼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이 자기 백성 모두에게 완전한 구원의 의를 나타낸 것입니다. (19) 이것은 대속적 구원을 강조한 것입니다. 둘째, 불행은 뉘뻬므로, 한 여인, 하와와 범죄를 여인의 후손의 순종으로 그리고 아담의 범죄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로 이루어 하셨습니다. 둘째, 울

법을 주심도 죄를 더 분명히 드러내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아 복음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20) 죄를 깨달을 때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죄가 왕노릇하던 것이 의가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극적 변화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순종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전합니다.

수 세례의 의미 (롬6:1-3) 찬 147장

구원을 적용하는 일에 세례를 받게 하심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첫째,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모든 죄를 죽인 것을 믿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나의 죄가 장사된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나의 부활이었습니. 완

전한 죽음에서 완전한 살아남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생명 곧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적용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목 순종의 종 (롬6:15-18) 찬 387장

구원 생활의 실재를 설명한 사도는 죄를 대적함으로 우리가 의에 대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첫째, 죄의 종이란? (17) 새사람이 된 신자라 할지라도 죄를 다시 범합니다.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처리된 죄는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여러 형태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가나인의 7 족속을 남겨둔 것처럼 죄로 이끄는 부패성을 우리 속에 두심으로 연단시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육의 요구를 따를 때 죄를 또 범하여 잠시동안 어둠 속에 거하게 됩니다. 둘째, 순종의 종이란? (16) 교훈의 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자가 된 것처럼 계속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거룩한 자가 됩니다.

금 거룩함에 이르는 삶 (롬6:19-21) 찬 499장

사도는 실질적인 거룩에 나가는 삶이 어떠한을 또 설명합니다. 첫째, 육신은 하나님의 거룩에 결코 이르지 못합니다. (19) 여기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의 부패성이 하나님의 거룩에 이룰 수 없음을 뜻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계속 육신을 따르면 결코 그 거룩에 나가지 못합니다. 오직 새 생명의 원천이신 성령의 소원을 따라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의의인 그리스도께

바침으로 거룩을 이룹니다. 죄에게 드렸던 지체 의에게 바쳐짐이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를 얻습니다. 셋째, 우리의 헌신이 그 열매를 결정합니다. (19-21) 자신을 불법, 불의, 부정에 바침으로 어둠과 수치 나타낸 것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바칠 때 영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거룩의 길은 헌신에 따라 좌우됩니다.

토 주 안에 있는 영생 (롬6:22-23) 찬 493장

한 죄인이 영생을 받기까지 일어나는 과정을 사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첫째,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일로 시작합니다. (22)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연합하여 어둠에 살던 자가 죄와 단절하고 하나님과 연합이 성령의 일하심으로 일어납니다. 둘째,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그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갑니다.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생각과 성품

에 참여한 증거들을 갖습니다. 셋째, 영생을 누리는 자리로 나갑니다. 이미 믿을 때 얻은 영생은 하나님을 앞으로 자라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즐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언약의 목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임마누엘의 실재를 얻으며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는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가진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독교교육 (27)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넘버2 연필과 어머니

다음 주말로 예정된 이사를 위해 지난 주말에 거라지 세일을 했습니다. 4, 5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은퇴자 마을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는 집은 땅이 넓고 나무가 많아서 전원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사면에 세워져 있어서 비탈과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또 고속도로 옆에 있어서 현관문만 열면 자동차 소음이 들립니다. 새로운 집을 찾다가 은퇴자 마을에서 아담하고 조용해 보이는 집을 찾았습니다. 은퇴를 하지 않아도 55세 이상이면 입주할 수 있다기에 평지에 지어진 그 집으로 옮겨가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거 팔아서 돈을 얼마나 번다고 그렇게 사가요?” 통명스럽게 말할 때 마음이 잔하고 불편했습니다. 시골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다가 무일푼으로 상경해서 판자집에 살며 시장에서 채소를 팔다가 사진관을 차렸고 칼라사진이 보편화 되면서 사진관을 접고 문구점을 시작했던 부모님의 가난하고 힘든 역사를 너무 잘 알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도 못 되었기에 죄송한 마음이 짜증 섞인 말로 나왔습니다.

막상 이사하려고 보니 살림살이가 참 많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나눠줄 것은 나눠주고 팔 수 있는 것은 거라지 세일해야 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시청에서 거라지 세일 허가를 받으려면 이를 정도 걸린답니다. 주중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는데 목요일 오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후에 전화로 문의해보니 담당직원이 컴퓨터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으며 다시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신청서를 재작성하고 확인 전화를 했더니 곧바로 이메일을 통해 허가서를 보내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머니를 늘 그렇게 무뎠던 대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도, 중등학교 다닐 때도, 대학교 다닐 때도, 유학생 시절에도, 그리고 이민자의 삶을 살 때도.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속으로 알고 있었기에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고치겠다고 여러번 결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너무 편하고 만만했기 때문인지 또다시 냉랭하고 무례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가구와 한 동안 구석구석에 쌓아두고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들을 차고 앞 드라이브웨이 에 늘어놓았습니다. 주방용품, 전자제품, 악기, 연장, 액자, 책, 장난감, 등등,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서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조그만 피아노는 너무 무거워서 사진을 찍어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다가 폐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비행기표를 구입해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더디게 날아가는 내내 좀 더 사실 수 있다면 이제는 정말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해드려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큰 아들을 기다리다가 결국 못 돌아 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유해를 받들고 장지로 향하는 동안 어머니의 희생이 생각나고, 어머니한테 다정다감하지 못했던 것이 나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아내가 언젠가 아이들이 사다놓은 넘버2 연필 한 박스를 어디서 찾아 꺼내왔습니다. 24자루가 들어가는 박스에 서너 자루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연필들을 보는 순간 문득 어머니의 모습이 머리에 떠오르고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또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전에 한 한인 마켓의 푸드코트에서 칼국수를 먹으며 어머니가 끓여주신 칼국수가 생각 나서 눈물을 보인 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라지 세일하는 날 아침 아내가 들고 나온 노란색 넘버2 연필을 보자 평생 고생과 수고의 삶을 살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다시 생각나고, 어머니를 살갑게 대하지 못한 죄책감과 후회감이 다시 느껴져,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연필을 등지고 서서 눈물을 멈추기 위해 애쓰느라, 또 우느냐는 아내의 핀잔에는 제대로 대꾸도 못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부모님은 화곡동에서 문방구점을 개업했습니다. 큰 아들의 야망을 따라 승진문구이라고 이름을 짓고 십여년 동안 장사를 했습니다. 조그만 가게에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문구류와 잡화가 진열되어 있었는데, 고객은 주로 동네 꼬마들과 학생들이었습니다.

팔 물건들을 대강 정돈해 놓고 집 근처 이곳저곳을 다니며 안내 낫말을 세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동생이 와 있었습니다. 동생이 형수로부터 넘버2 연필 이야기를 듣더니 그 연필을 자기 집에 두겠다고 가지고 갔습니다. 그게 웬지 모르게 위로가 되고 고마웠습니다.

한번은 부모님이 아들 가족을 보러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마트를 돌아보던 중 한 편에서 문구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넘버2 연필 박스들을 챙겼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있는 친지들에게 가져다 줄 선물을 구입하시는 건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열대에 있는 대여섯 박스의 연필을 모두 사겠다고 하셔서 “아니, 그렇게 많이 사서 뭘 하려구요?”하고 질문했습니다. “가게에 갖다 놀라구.” 그제야 문구점에서 팔기 위해 연필을 사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 펼쳐진 물건들을 구경했습니다. 터무니없이 싼 값을 붙여놓은 물건들을 하나 둘 사셨습니다. 다 팔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드라이브이 한쪽이 뻥뻥하게 비었습니다. 이삿짐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남은 것들은 구세군에 연락해서 가져가라고 할 계획입니다. 온몸의 근육이 빠근하지만 새로운 경험으로 인해 마음이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jonk@db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선교 편지 케냐

저희와 저희 사역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는 3월 초에 케냐로 돌아와서 아파트를 구하고 입주하였습니다. 3월 27일부터 체코 프라하에서 있었던 SEED 지역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곳에 참석하기 전에 입주하려고 서둘러 아파트를 구하였습니다. 다행히 밀알의 홍보대사인 김해영 선교사가 사는 아파트 위층으로 이사하게 되어 서로 교제도 하며, 아파트를 비울 때에도 서로 도움을 받고 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드립니다. 3월 말에 있었던 지역모임 참석으로 3, 4월 기도편지를 이제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역 장애인 단체 방문

Call for Africa 라는 이태리 NGO 단체를 김해영 선교사님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케냐에서 사역한지 약 13년 정도 된 단체로서 건물과 방과 후 시설과 치료시설이 잘 갖추어진 단체로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에 참고하고 배울 수 있는 단체였습니다.

SEED 아프리카, 유럽 지역모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아프리카, 유럽 연합 지역모임은 각 지역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함께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저희는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와싱턴중앙장로교회의 류승렬 목사님, 올네이션교회의 양준호 목사님을 강사로 매 시간 은혜 받게 하시고, 체코에서 사역하시는 한정훈 선교사님의 인도로 믿음의 공동체인 Moravian의 사역지 Hermhut(독일)을 방문하여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신앙 공동체의 면모를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고 도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연합모임을 끝으로 아프리카와 유럽은 각각 지역 모임을 가지기로 하여 다음번에는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다. 저희는 지역 모임을 마치고 46년 만에 독일을 방문하여 저희들이 근무하던 Wurzburg를 방문하였지만, 저희들이 근무하던 병원은 이미 아파트 단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다만 병원으로 올라가던 언덕만 남아 있어서 감회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Uganda 학사 사역

지역 모임을 마치고 돌아온 후 몇일 지나지 않아 우간다 학사 사역을 셋업하기 위해서 우간다 Mbale라는 곳으로 가서 학생들을 면접하고 5명을 면접하여 선발하였습니다. 5명 중에 Esther 라는 여학생은 무슬림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개종한 이유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무슬림인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버림으로 회의를 느끼고 기독교로 개종하여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학교에 지원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Esther 학생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Uganda 두 번째 방문

Agape Mission Africa 의 director 이신 유진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가족의 상을 당하셔서 미국에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4월 중순에 다시 우간다를 방문하였습니다. 함께 사역할 Rivers of Life 교회와 MOU를 맺고, Agape Mission Africa 와 교회가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학생중 한명인 Philip 이라는 학생이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저희들이 가 있는 동안 퇴원하여 집에 왔다고 들었는데, 저희들이 그 곳을 떠난 다음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학생은 우간다 사역의 책임자인 Emmanuel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병원 시설과 의료 시설이 열악한 환경에서 위계양으로 생각하고 고통이 심해 병원에 갔는데, 아마도 위암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집으로 보내졌고 집에 온지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6살의 젊은 나이였고, 교회에서 Sunday school Teacher 로 봉사하면서 앞으로 Chef 가 되고 싶다고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Emmanuel 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시오.

고아원 사역

고아 사역은 앞으로의 프로젝트로 계속해서 다른 고아원 방문을 하면서 고아원 허가 받는 일 등 2023년 동안 잘 준비하여 2024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근처에 있는 By Grace Children's Home 을 내일(5월 5일) 방문할 예정입니다.

기도 제목

1. 우간다 학사 사역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재 7명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까운 곳에 장소를 구하여 Rivers of Life 교회와 좋은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2. 마추에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고아원 사역이 건물이 잘 세워지고 고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3. 장애인 사역도 김해영 선교사님과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나도록

케냐, 양재주 / 양선숙 선교사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파푸아뉴기니

▲ 종족명
와기 종족

▲ 인구
약 4,000명

▲ 종교
90% 이상이 천주교와 정령숭배, 개신교는 10-20%

▲ 기타
파푸아뉴기니 마당 주에 위치

▲ 프로젝트 소개
4복음서 및 사도행전, 그리고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등 와기어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과 부활이신 예수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주변 종족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한다.

▲ 프로젝트 진행
봉헌된 누가복음과 청년들이 만든 30여 곡의 종족어 찬양이 교회와 가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창세기, 4복음서, 사도행전과 13편의 서신서가 번역과 점검 중에 있으며, 그림 사전 및 이야기 책들이 출판될 예정이다.

▲ 기도제목

1. 말씀을 번역하고 교회를 섬기는 셀빈, 다간틴, 렉스, 아도르프, 데이빗 리 형제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며 말씀을 깊이 깨닫는 복을 주시도록
2. 번역된 말씀이 교회와 가정 안에서 잘 활용되고, 청년들 안에 복음의 생명이 뿌리내리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한 복음으로 자라가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시애틀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청빙 공고

시애틀 온누리교회는 1994년 미국 시애틀에 세워진 한인 교회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이민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끌어 주실 담임목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청빙요건

- 장로교의 교리와 규례를 준수하며, 장로교단에서 목회하기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으로서, 영혼 구원과 목양 및 목회에 대한 소명과 열정이 있으신 분
-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 (M.Div. 이상)하신 분
- 만 40세 이상으로 다음 세대와 이민교회 미래를 위한 비전이 있으신 분
- 5년 이상(부목사, 신학대학 교수 및 선교사 경력 포함)의 목회 경력이 있으신 분
-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시는데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이중 언어(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 지원서/자기소개서 (소정양식) - 시애틀 온누리교회 웹사이트(<http://www.seattleonnuri.org>)에서 다운로드 가능
- 목사 안수 증명서
- 정규대학 및 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
- 추천서 (2인)
-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3-5편 (설교 원고, 동영상 파일 또는 웹주소)
- 가장 최근 목회한 교회 주보 1장

보내실 곳

- Email: seattleonnuri4@gmail.com
- 우편: Seattle Onnuri Church (Attn: 청빙위원회)
- 20150 45th Ave. NE, Lake Forest Park, WA 98155, USA
- 제출마감: 2023년 5월 31일

문의 및 안내

- 모든 문의는 시애틀 온누리교회 청빙위원회 공식 이메일(seattleonnuri4@gmail.com)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접수확인 및 심사결과는 이메일로 통지해드리며, 2차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청빙을 위한 일에만 사용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시애틀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www.seattleonnuri.org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 시: 2023년 5월 23일(화)-5월 26일(금)
장 소: LaGuardia Plaza Hotel/퀸즈장로교회

예배 축제 위로 계승

환영합니다 welcome

교회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 하라
(엡:23)

CHURCH, **BE FILLED** WITH **JESUS** CHRIST EPHESIANS 1:23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 47회 총회

THE 47th GENERAL ASSEMBLY OF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